



2018 한국 서울에서 열린 WCRC 실행위원회 메시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 미가 4: 3

WCRC 실행위원회는¹ 에큐메니칼 협력자들과 함께 2018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위해 : 변화, 화해 그리고 갱신**” 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모였다. 실행위원회는 한국 회원 교회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그들의 훌륭하고 풍부한 영성을 통해 회의가 풍성해졌다.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화해와 통일을 향한 시도가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순간에 이곳에서 모였다. 두 회원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한국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것에 대해 우리도 큰 희망을 품고 있다. 1945년의 한반도 분단은 일본의 강점 아래 고통을 겪고 있던 한민족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전술적 방편을 위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있었던 타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27일에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과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현재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과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공존과 통일을 향한 조치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분단은 분명코 한민족사의 끝이 아니다. 한반도의 경험은 우리에게 전쟁과 폭력 및 군사화를 극복할 수 있고 갈등의 씨를 뿌리는 기득권이 승리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여준다.

¹ 연합으로 부름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은 109개국에 소재한 회중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 연합교회, 그리고 왈도파 등 233개 교단에 소속된 1억명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여정은 하나의 영감이다. 회의 기간 중에 우리는 더 넓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했다. 우리는 WCRC가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서, 특히 북한과 미국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와 지지로 커뮤니티를 초청한다.

기독교인들의 에큐메니칼 단체로서 WCRC는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일어난 WCRC 회원교회인 디포네고로 인도네시아 기독교교회(GKI)를 포함하여 다발적인 폭탄 테러로 상처를 받은 교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인명 손실에 대해 들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루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일하게 될 세계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는 폭력과 공포와 절망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계 곳곳의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한다. 특히, 우리는 카메룬, 케냐, 시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고 콜롬비아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증오를 극복하고 양극화와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과 부정의의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연대하는 기도와 실천에 헌신한다. 그것이 정의로 가는 지난한 길이요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WCRC 실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교회가 생명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의 총명한 삶을 위하여 세상의 변화에 헌신하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위해 : 변화, 화해 그리고 갱신의 운동에 헌신한다.**